

# '1인 1메뉴' '점심만 영업'...식재료 못구한 외식업계 '고육책'

### 거리두기 해제 됐지만 고물가·고금리·매출감소 삼중고에 시름 천정부지 치솟은 식재료값 부담...손님 잃을까 가격 인상 주저 광주·전남 외식업소 6월 매출 762만원...한 달 새 15.6% 떨어져

신안 압해도에서 30석 규모 백반 뷔페식당을 운영하는 정원중씨는 최근 1인당 식사비를 9000원으로 1000원 올렸다. 코로나19 절정기에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버텼지만, 올해 들어 모든 식재료 가격이 크게 올라 식당을 연 지 4년 만에 처음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정씨는 "따로 종업원을 두지 않고 아내와 둘이서 일하며 인건비를 줄여가며 식당을 꾸려왔지만 한계에 달했다"며 "올 초 18 l에 3만8000원 하던 식육 율값은 6만원대로 2배 가까이 뛰었다. 매일 식탁에 오르는 30가지 음식 재료 가운데 안 오르는 것이 없다"고 호소했다. 3년에 걸쳐 외식업계를 옥죄어 왔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지만, 고물가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음식점 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식재료값 부담을 덜기 위해 음식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지만 손님을 잃을 우려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식당 곳곳에서는 '1인 1메뉴'를 부탁하거나 저녁 장사를 접고 점심 영업만 하겠다는 안내문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국내의 식재료 수급이 불안정해 원래 팔던 음식을 내놓지 못하는 사례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4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더 외식' 외식업 카드 소비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지역 외식업소 매출은 광주 1498억원·전남 2195억원 등 3693억원으로, 전달보다 5.4%(-672억원) 감소했다. 지난 5월 광주·전남 외식업소 평균 월매출은 902만원(광주 903만원·전남 901만원)으로 3년 내 최고를 기록했지만, 최근 불거진 코로나 재유행 영향으로 6월 762만원(광주 762만원·전남 761만원)



올 4월 들어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지만 식재료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고육자책으로 음식 가격을 올리거나 영업시간을 줄이고, 제공 음식을 제한하는 음식점이 늘고 있다.

으로 떨어졌다. 한 달 새 매출이 업체당 평균 141만원(-15.6%) 떨어진 것이다. 원재료 수급 불안정은 비단 영세 자영업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광주·전남 6곳 등 전국 87개 매장을 거느린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는 지난 3월부터 생연어 원물을 잘 구하지 못해 '생연어 품절'을 공지하고 있다.

롯데리아 일부 매장은 국내산 닭다리 수급이 불안정해 고객이 원하는 만큼 닭다리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붙인 롯데리아 한 매장 직원은 "두 달 전부터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닭다리가 급격히 줄어 닭다리 1개와 닭가슴살 1개, 가슴살 2개로 구성된 상품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며 "고객에게 닭다리가 들어간 상품을 주지 못할 때는 닭가슴살 1개 더 주는 방식으로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이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가격 인상은 곳곳에서 이뤄지며 소비자 외식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외식물가 상승률은 광주 8.1%·전남 9.0%를 기록했다. 지역 외식물가 상승률은 광주는 1998년 7월(9.9%) 이후, 전남은 1998년 3월(9.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남의 경우 지난달 외식물가 상승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9%대로 오르며 가장 높았다. 지난달 호남지방통계청이 조사한 지역 외식품목 39개 가운데 광주 구내식당 식사비와 음료를 제외한 모든 품목 가격이 올랐다. 광주에서는 식당에서 파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전달보다 각각 18.9%, 15.9% 뛰는 등 12개 품목 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남에서도 갈비탕(13.4%)과 자장면(11.4%) 등 15개 품목이 두 자릿수 올랐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박삼득 전 보훈처장 초청 강연.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왼쪽)은 4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열린 특강에 박삼득 전 보훈처장을 초청해 '끝나지 않은 6·25 전쟁'의 주제로 임직원 대상 강연을 진행했다. 광주은행은 오는 22~25일 '2022년 을지연습' 대비 재난안전체제도 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제공>

##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생활물가 안정 초점

### 다음 주 중 민생안정대책 발표

정부가 예년보다 빨리 다가온 추석에 대비해 이르면 다음 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추석 성수품 가격을 비롯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대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시기가 빠른 데다 최근 장마와 폭염의 영향으로 성수품 물가 불안이 우려된다"며 "관련 부처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추 부총리도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 보고 등을 통해 추석 민생안정대책 마련 계획을 밝

혔다. 이번 대책에는 배추,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밥, 명절 등 명절 주요 성수품 가격 안정 방안이 담긴 전망이다. 정부는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공급량을 평소보다 늘리고 각종 할인행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통·통신·의료·교육비 등 생계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명절마다 확대해 온 온라인 상품권 발행은 이번 추석에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기한을 미뤄주는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국제 환급금을 예정보다 빠르게 지급하는 방안 등도 대책에 포함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 대형마트 여름 휴가철 다양한 먹거리 할인전

대형마트들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양한 먹거리 할인전에 나선다. 이마트는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한우와 수입 소고기, 삼겹살·목심, 제철 과일 등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휴가철 온 가족 먹거리' 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는 "여름철 복잡한 요리 과정 대신 간편식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7월 한 달간 홈플러스 밀키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 증가했다. 행사 기간 밀키트 49종을 최대 65% 할인된 9900원 가격에 선보인다. 소불고기 버섯전골, 밀피유나베, 소고기 찹스테이크, 블랙라벨 스테이크, 김바스알아히요, 캠핑포차 삼진어묵탕, 북창동식 해물순두부찌개, 호로록 로제떡볶이 등이 대표적이다. 유명 맛집 냉동 간편식 50여 종은 행사카드 결제 때 20% 할인가에 선보인다. 돈까스와 피자, 치킨 등 상품을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1+1' 혜택도 마련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했다. 이번 대책에는 배추,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밥, 명절 등 명절 주요 성수품 가격 안정 방안이 담긴 전망이다. 정부는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공급량을 평소보다 늘리고 각종 할인행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통·통신·의료·교육비 등 생계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명절마다 확대해 온 온라인 상품권 발행은 이번 추석에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기한을 미뤄주는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국제 환급금을 예정보다 빠르게 지급하는 방안 등도 대책에 포함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 광주신세계 50억원 투입 '프리미엄 푸드마켓' 새 단장

### 스마트팜 상품 40여 종으로 확대 개장 기념 31일까지 할인 이벤트

간간해진 소비자 입맛을 잡기 위해 ㈜광주신세계가 50억원을 투자해 식품관을 새로 단장했다. ㈜광주신세계는 5일 개선 공사를 거친 지하 1층 '프리미엄 푸드마켓'이 문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8년 만에 단행한 개선 공사이며, 공사비 50억여 원이 투입됐다. 광주신세계의 올 최대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프리미엄 푸드마켓'에서는 고객 편의 서비스와 농산물 직거래(로컬푸드) 등이 눈에 띈다. 정육 판매장에서는 신세계의 직경매 한우를 만날 수 있는 '지육 숙성살'이 운영된다. 이른바 '소 잡는 날'을 정해 고품질 원료 고기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판매할 방침이다. 축산물 브랜드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3차례 받은 친환경 로컬한우 브랜드인 '녹색한우'와 양념육 전문 브랜드 '미트윈', 남원 지리산흑돈 '버크셔K' 등 제품을 만날 수 있다. 농산물 매장에서는 지역에서 수확한 과일을 당일 새벽에 들어오는 '신선한 새벽 직송 로컬 과일 코너'가 마련됐다.



광주신세계 '프리미엄 푸드마켓' 투시도.

화순의 블루베리, 영암 무화과, 남원 캠벨포도 등이 대표 상품이다. 또 1~2인 가구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조각 과일'도 진열대를 채운다. 이번 새 단장에서 광주신세계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 상품을 40여 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자색 당근 등 15가지 특수 채소도 소비자를 만난다. 수산 매장에서는 직원이 직접 생선을 구워주는 '피쉬텔러' 서비스가 도입된다. '목포 33번 중매인'이 새벽에 경매를 통해 들어온 고등어, 가자미, 갈치, 전갱이 등 제철 수산물 이 석쇠에 오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매장에는 생물 참치가 대표 상품인 '김치 마구로'와 호남 속성 흥어회 20년 경력을 자랑하는 '영산 흥어', 영광 법성포를 기반으로 성장한 '미성 건생선'이 새로 입점했다. 조리 판매장 '발효:곳간'에서는 스파클링 막걸리, 스파클링 약주 등 전통 발효 특산식품을 선보인다. 광주신세계는 새 단장을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완도 전복과 무안 호박고구마 등 직거래 농산물을 기간별로 20~60%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오픈런' 행사를 벌인다. 스테이크 4종은 20% 할인 판매하며, 구이 생선은 1만·2만·3만원 균일가로 선보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협 전남지역본부

### 청년농부사관학교

### 전남지역 졸업생 간담회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4일 무안군 삼향읍 지역 본부에서 청년농부사관학교 전남지역 졸업생 10명과 '청년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청년 농업인들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며 겪은 애로사항 및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청년농부사관학교는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6개월 과정의 청년농업인 육성과정이다. 농협 중앙회는 참가자들에게 농업에 관련된 이론교육부터 현장체험 지원 등 실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첫 졸업생이 배출됐고, 지난해까지 총 6개 기수 364명의 예비 청년 농업인이 탄생했다. 올해는 7·8기 93명의 교육생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출신 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 10명과 박서홍(왼쪽 3번째) 농협 전남본부장이 4일 무안군 삼향읍 지역본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박서홍 본부장은 "농촌의 미래는 우리 젊은 청년 농업인들의 손에 달려있다"며 "더 많은 청년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남 농협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남 농협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경총 광산구에 중장년일자리센터 개소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광주시 광산구 '광주광산고용복지+센터'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개소했다고 4일 밝혔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만 40세 이상 지역 중장년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구인구직 매칭서비스와 전직 지원서비스, 생애경력 설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센터에는 2명의 직업상담사가 파견돼 광산구 지역 구직자와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더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2015년 9월 광주시 동구 금남로5가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입주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경우 방문 구직자들의 구직상담 및 일자리 매칭,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등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에 재직중인 중장년의 경력설계를 돕는 등 다양한 서비스로 지난해 전국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성과평가 결과 최우수 S등급을 받기도 했다. 이병근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장은 "이번 광산센터 개소를 계기로 중장년들의 취업알선 및 재취업 교육을 광주 전지역으로 확대하게 됐다"며 "중

장년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일자리센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73.11(+11.66)
↑ 코스닥	825.16(+9.80)
↑ 금리(국고채 3년)	3.114(+0.049)
↓ 환율(USD)	1310.10(-0.20)